

돈만 받고 타시·도로 울며 주는 출산장려금

시·군 재정난에도 현재 지원...보육·교육 나온 곳 찾아 떠나

전남지역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왔던 신생아들이 15세가 되기도 전에 타시·도로 떠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립도 최하위인 전남 각 시·군이 막대한 장려금을 쏟아붓는 등 '날'은 대책'에만 신경을 쓸 뿐 '날은 이후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의 미래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가 급감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年 7억 넘게 지원하지만
신생아 중 30% 이상이
타지역에 거주하는 곳도
유소년 1년새 7천명 줄어
전남 인구 고령화 가속

3월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도의 인구는 190만5373명으로, 이 가운데 유소년(0~14세)이 24만6311명으로 13.0%, 고령인구(65세 이상)가 39만1097명으로 20.0%를 차지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26만7965명으로 67.0%였다. 문제는 유소년 인구가 매달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525명, 10월 613명, 11월 841명 등 매달 유소년 인구가 빠져나갔다. 지난해 11월 말 25만3783명(13.4%)이었던 유소년 인구는 1년만에 7472명이나 감소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출산율 8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해남군의 출산율 합계(여성 1명

이 낳은 평균 아이 숫자)는 2.43명으로 3년 연속 기초지자체 1위였다. 이 같은 높은 출산율은 7명의 자녀를 낳으면 62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완도군 등 전남의 각 시·군이 '인구 늘리기' 방편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현재 투입을 통해 출산율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출산장려금으로 7억5000만원을 지급한 완도군은 출산율 기준 1년 전 거주, 셋째 이상 36개월 분할 지급 등을 통해 출산율을 최대한 묶어두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올해 완도에서 태어난 284명 중 상당수가 3살 이상이 되면 보육이나 교육 등의 문제로 지역을 벗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해남도 마찬가지로, 해남군은 첫째와 둘째의 경우 18개월, 셋째 이상은 24개월까지 관리하고 있으나 이후 출생아들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관리는 안 되고 있지만 해남의 경우 출생아 가운데 30% 이상은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며 "유소년들이 보육시설이나 취학 여건이 좋은 광주 등 타도시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여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출생아는 다른 지역보다 많지만, 정착 이들이 지역 내에서 성장하고 취학하는 대신 15세가 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면서 전남의 고령화가 촉진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주말엔 아이들과 문화전당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제작한 음악인형극 '깔깔나무'의 출연 배우들이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을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설화에서 모티브를 따온 이 작품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줄거리로 구성돼 있다. 4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문화원 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文·安 치킨게임 ... '빅뱅전야'

<상대가 무너질 때까지 벌이는 경쟁>

문재인, 혁신전대 공식 거부
안철수 "당의 앞 길이 걱정"
새정치, 분당 위기감 고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제안을 거부하고, 현행 지도부에서 혁신 작업과 총선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이에 안철수 전 대표 등 당내 비주류 진영에서는 강력 반발, 탈당 및 분당 사태가 예견되는 등 새정치연합이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승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당내 분열만 계속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현행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본인 주도로 혁신 작업과 총선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안 전 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제안에 대해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권경쟁으로 날을 셀 수는 없다. 사생결단, 분열의 전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간 공멸"이라고 잘라 말하고 "당 대표직을 사퇴한 후 다시 전대에 나서란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총선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총선기획단, 총선정책공약준비단, 호남특위, 인재영입위, 선대위 등을 순차적으로 구성해 총선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위가 만든 혁신안, 안 전 대표가 제안한 혁신, 더 근본적 혁신들을 제 책임으로 해가겠다"며 "당을 흔들고 해치는 일들도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비주류 진영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에 비주류 진영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이날 "당의 앞길이 걱정이다"며 "(문 대표가) 당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당이 이래로는 안 된다는 민심과 당심을 저버린 문 대표의 회견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당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 할 말도 없다"고 깊은 실망감을 보였다.

당내에서는 이번 주말을 계기로 호남지역 일부 의원들의 탈당과 함께 본격적인 분당 국면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司試 2021년까지 4년 연장

오는 2017년 폐지를 앞뒀던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된다.

법무부는 3일 경기 과천시종합사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시 4년 유예안'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

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6면>
 현행법에 따르면 사시는 내년 1차 시험에 이어 2017년 2차 시험을 치른 후 폐지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

법무부, 폐지유예 법안 추진
찬반진영 모두 비판 목소리

정에 있지만,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어 그 경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사시 폐지 유예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후 사시 폐지에 따른 3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사시 1·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사시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로스쿨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학,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사시 존치 논의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구기관을 설립해 제반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 등이다.

이에 대해 사시 찬반진영 모두 "논란만 4년 더 이어가게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평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진학부장형, 정시 지원 가능 점수 ▶ 7면

신 팔도유람-나주 역사여행 ▶ 18면

호남 최대 부수 24면 발행

LEXUS HYBRID ZERO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All New ES 300h

광주 전시장 : 080-384-7733(광주 서구 상무대로 881) | 전주 전시장 : 080-263-7743(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21) | www.hyosunglexus.com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ES 300h(배기량 2,494cc, 공차중량 1,685kg, E-CVT 변속기), 복합연비 : 16.4km/ℓ(도시연비 : 16.1km/ℓ, 고속도로연비 : 16.7km/ℓ), 복합CO2 배출량 : 103g/km, 등급 : 1등급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한다

차를 향해 걸어가던 순간부터 시작된 감동은 차에 오르는 순간과 드라이브의 순간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조차 럭셔리하게 바뀌게 될 렉서스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할 단 하나의 하이브리드입니다

